

# 建築環境의 規範과 建築家の 役割

金 壽 根\*

## 目 次

1. 建築環境 — 人間 — 文化
2. 建築行爲의 有機的 一貫性
3. 最終規範 : Ecological 한 調和

## 論議의 焦點과 어휘

㉑ physical environment 라는 概念은 極히 包括的으로 생각할 때 質量과 Energy— 이 두 單位로 還元될 수 있는 모든 現象을 包含한다.

그것은 宇宙線의 派長( $10^{-12}$ cm)으로부터 銀河系의 直徑( $10^{24}$ cm)에 이르는 광범위한 크기에 걸쳐 있다.

따라서 physical environment 自體의 本質을 論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난처할 따름이지 別로 큰 意義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 physical environment 를 여러 段階의 scale (가령 國土, 地域, 都市, 建物... 등)로 나누어 그 하나에 관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의 범위를 어느 하나의 段階에만 局限시킬 수 없는 難點이 있다. 예를 들어 地域에 관해 얘기한다 하더라도 上位에 놓이는 國家的 次元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下位에 놓이는 都市, 地區 등과 分離시켜 얘기할 수가 없다.

㉒ 따라서 physical environment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벅차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힘들다. 결국 physical environment 를 어떤 客觀的 對象으로 얘기하게 될 때는 항상 數學的 論理整然한 展開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環境學(이름을 부쳐본다면)의 性格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觀點에서 成立되기 때문에 純粹한 論證을 要하지 않는다. 卽 環境學은 극히 主觀的이고 意志的인 “人間의 行爲”에 관한 學問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physical environment 를 對象으로 해서 하나의 明確한 體系를 세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便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 建國大學校 建築科 教授

㉔ “人間의 行爲”라고 할 때 “人間”이라는 것의 性格은 어떠한 것인가를 明白히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一家族— 一集團— 一民族— 人類는 나아가는 여러 次元에서 環境問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中 어느 하나의 立場은 다른 立場에 對해 排他的으로 作用하게 될 수 있으므로 環境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 그 政策決定의 근거라든가 倫理的 判斷의 근거를 어느 하나의 立場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만 하게 된다.

㉕ 어느 하나의 立場이란 “文化”라는 것에 의해 規定되어지는 集團이라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하나의 文化單位라는 것의 特質은 思考와 行動에 있어서 同質性이 있고 서로의 생각을 交流시키는 데 있어 同質의 媒體(가령 言語, 文字, 몸짓 등)를 구사하며 따라서 交流過程에 抵抗이 크게 發生하지 않으므로 해서 歷史의 形成과 그 自體의 生存, 生活에 있어 共同體的 立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共同體的 立場은 어느 한 集團의 創造力을 가장 極大化할 수 있고 가장 集中化할 수 있어 環境形成에 있어서 우리가 取해야 할 立場이 된다.

㉖ 環境이라는 것은 “存在하는 모든 것”이고 그 外延의 모습은 “物理的 環境”이 되며 그 中 人間의 個人的 또는 集團의 生活을 담는 부분을 “建築環境”이라고 부르게 된다.

“生活을 담을 수 있도록 環境을 操作하는 行爲”를 “建築行爲”라 하고 이것은 垂直的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조그마한 집기—家具—室內—建物—住區—地區—都市—地域—國土로 나아가며 水平的으로는 플래닝—디자인—엔지니어링—프로그래밍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 각각의 box에 속하는 專門家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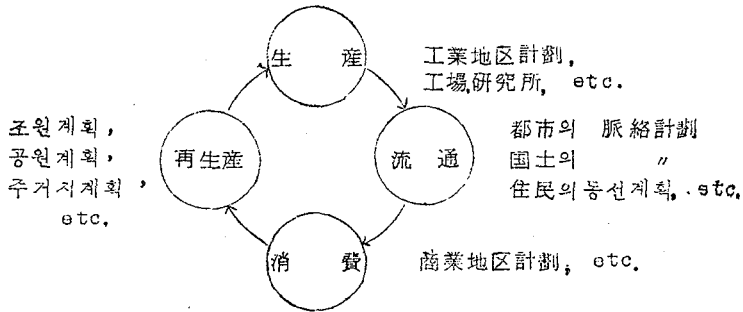
建 築 行 爲

	Planning	Design	Engineering	Programming
집 기		○		
Furniture		○	○	
Interior		○	○	○
Building	○	○	○	○
Neighborhood	○	○	○	○
District	○	○	○	○
City	○	○	○	○
Region	○			○
Nation	○			○
World				

(註1) ○ : 現在로서 나타난 전문영역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建築”의 概念은 매우 包括的인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建築의 本來意味는 그러한 것이다.

㉗ 建築行爲는 生活의 側面에서 보자면 이것은 生活의 cycle의 모든 局面에서 發生된다.



㉔ 이 小論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i) 建築環境은 人間에게 그리고 그 文化에 어떻게, 관련지어지는가?

ii) 建築環境을 決定짓는 建築行爲가 專門化되어 수평—수직으로 階각기 斷絶되어 있는 것에 어떻게 有機的 一貫性을 부여할 수 있는가?

iii) 建築環境의 構成에 있어서 最終的 規範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상의 세가지 側面을 하나의 有機的 集團인 民衆의 觀點에서 考察하려는 것이다. 이것의 意圖는 이제까지 建築環境에 관련된 諸學問, 諸活動, 諸教育構造가 새로운 方向으로 전환해야 할 時節이 이제는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拂력하는 데 있기도 하다.

### 1. 建築環境—人間—文化

#### 가. 汚染과 象徵態

오늘날 環境問題라면 人口問題와 汚染問題를 곧장 聯想하게 된다. 사실 두가지 要素는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그 보다 못지않은 심각성을 지녀야 할 문제는, 그리고 大部分의 大衆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環境問題가 있으니 그것이 곧 環境이 갖는 象徵機能으로서의 問題다.

汚染이 人間の 肉體와 生理에 直接 부딪쳐 지는 것이라면 象徵態는 그 精神과 意識에 直接 부딪쳐 진다.

生理와 意識이 人間の 生存과 生活에 同一한 比重의 것이므로 兩者에 加해지는 충격도 역시 同一한 比重의 것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汚染만이 大衆들에게 問題意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汚染은 計量可能이라는 認識에 있어서의 客觀性과 確定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即, P.P.M., B.O.D. 등의 單位로서 測定되고 있으며 그 限界와의 比較가 可能한 것이다.

反面 象徵態는 計量不可能한 形而上學的 領域의 것이다. 또한 各個人에게 매우 相對的으로

로作用된다. 어느 한 사람에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이 다른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客觀性과 確定性이 없는 까닭으로 사람들은 象徵態에 관한 論議를 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象徵態가 가지는 機能은 마치 汚染이 生存의 側面에서 가지는 比重과 같이 生活의 側面에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 나. 象徵機能과 日常性

物質環境과 生物體 사이에 存在하는 關係의 pattern을 볼 때 人間世界와 動物世界 사이에서 區別되는 點은 各個의 知覺形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動物은 自身の 環境을 即物的으로 把握한다(또는 本能的). 反面 人間은 自身の 環境을 抽象的으로 把握하려 든다.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환경에 對해 精確한 「센스」를 가지고 方向을 알아내고 모이를 쪼아먹는 것에 비하면 갓난아기가 지니는 能力은 거의 無에 가까우다. 그러나 人間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知覺過程에 의해 자신의 環境에 對한 把握能力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知覺形式이야말로 他動物과 다른 전혀 새로운 自身の 環境, 即 文化라는 것을 可能케 하고 있다.

따라서 動物에 있어서의 環境의 作用은 그들의 動物的知覺形式과 마찬가지로 올바로 그 自身の 運動에 投射된다. 即 動物에 있어서는 受容系統과 運動系統 사이는 直接的인 作用—反作用 關係에 놓여 있다.

그러나 人間에 있어서 環境의 作用은 또 하나의 微妙한 系統을 거친다.

環境의 人間에 對한 作用—即 人間의 外的經驗은 人間에게 받아들여 지면서 質的인 變化를 겪는다. 이것이 動物과 다른 제 3의 系統, 即 象徵系統이다. 그러므로 人間에 있어서 物質環境은 純粹한 物質自體의 客觀的 樣相으로 作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象徵態로서 間接的으로 作用하게 된다. 이것이 物質環境에 對해 人間이 갖는 經驗이며 이 經驗의 蓄積이 人間의 生活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人間도 還境에 對한 適應에 있어서는 가장 低級한 生物의 경우와 同一하다. 그러나 人間은 이 새로운 제 3의 系統에 의해 다른 動物에 비해 보다 넓은 實在 속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테면 實在의 새로운 次元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E. Cassirer, 人間論 第一部 參照, 민중서관, 1958)

人間의 感官을 통하여 發生되는 外的經驗에 있어서 視覺經驗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른 感官에 의한 經驗보다도 比重이 크다. 그것은 人間의 知覺能力中 圖形認識에 의한 直觀的 把握이 가장 效果的이어서 여러 器官中 視覺構造가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人間의 外的經驗의 대부분은 視覺經驗이라고 보아진다.

그런데 建築環境이라는 것은 人間의 視覺과 항상 遭遇되는, 말하자면 演劇에 있어서 舞臺장치와 같은 重要性을 가진다. 舞臺장치가 劇中事件의 感動을 관객에게 전달시키는 역할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建築環境도 人生의 무대장치로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는 存在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建築環境의 象徵機能이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理由는 建築環境에 對해 人間이 갖는 經驗이 日常的으로 反復되기 때문이다.

이 日常性에 依해 經驗을 認識하는 銳敏度가 鈍化된다. 建築에 있어서도 一回의 感動은 明白히 存在한다. 그러나 이 始初의 만남에서 얻어지는 感動은 日常的 反復으로 해서 現在 意識으로 부터 潛在意識 속으로 과몰하고 漫다.

그러므로 窮極의으로 建築環境의 底邊에 깔려 있는 문제는 日常性的의 領域에 속해 있다. 建築에 있어서 機能, 調和, 認識 등 모든 問題가 이 潛在意識을 對象으로 한다. 이 點에 있어 建築이 다른 造形作業과 區別된다고 볼 수 있다. 即, 다른 造形藝術은 非日常的의 경험이라는 신선함을 다루는데 비해 建築은 日常的의 經驗이라는 무로함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建築環境의 構造(形式)와 生活(內容)

現在 意識의 바깥쪽, 即 一種의 無關心의 영역에 놓여 있는 建築環境의 構造는 生活의 pattern을 決定짓는 重大한 要素가 된다. 그릇의 형태와 그 안의 액체의 형태 사이의 관계같이 構造와 生活은 관련되어 있다. 이 같은 關係, 即 適應態가 人間的인 倫理的 妥當性을 지니고 있는가는 중요한 問題가 된다. 높다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목이 길어진 기린의 方式과 손에 닿도록 나무의 높이를 줄이는 人間의 方式中 어느 쪽으로 環境과 人間의 生活이 關係를 맺고 있는가 따져봐야 한다. 人間은 어느 쪽으로든지 環境과 自身의 生活사이의 갈등을 해소시키게 마련이다.

사실상 오늘날에 있어서 建築環境에 對한 生活의 適應方式은 발을 신발의 크기에 맞춰가는 식이며 게다가 더욱 不幸한 것은 그러한 事實을 깨닫지도 못하고 當한다는 點이다. 都市의 物質構造와 都市人의 日常生活 사이에 있어 왔든 갈등에 對한 都市人은 무감각하게 이를 受容하고 그 대신 자신의 感受性을 變質시켜 온 것이다. 그것은 asphalt 바닥에서 어린 시절을 겪은 아이와 山川草木과 大地위에서 어린시절을 겪은 아이 사이에 나타나는 感受性의 變質過程 같은 것이다.

都市人은 저열한 物質構造에 屈從을 강요받은 셈이었다.

#### 라. 日常生活과 文化

이러한 屈從은 人間能力의 허망한 浪費를 야기시키며 集團의 努力으로 文化를 創造的으로 形成하려는 作業에 장애가 된다. 建築이 文化의 具體的 表現이라는 말은 兩者의 關係가 可逆的이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열한 建築環境에의 屈從은 저열한 文化를 의미한다. 文化는 歷史의 entropy的 積分值이며 歷史의 微分値는 日常生活인 것이다.

歷史에 있어서의 여하한 事件도 日常生活을 媒質로 하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日常生活은 日常的思考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열한 환경은 저열한 사고에 보탬이 되고 저열한 思考는 결국 저열한 歷史를 만들고 저열한 歷史는 저열한 文化밖에 못만들게 된다. 建築家は 生活의 日常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이며 자기가 속하는 集團의 文化에 對해 깊은 通察力을 지녀야만 한다. 建築家の 作業은 이러한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單純한 造形作業家가 아니다.

## 2. 建築行爲의 有機的 一貫性

### 가. 無秩序의 根源

오늘날 建築環境이 보여주는 無秩序한 生活과 環境構造 사이의 갈등을 그 本質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無秩序는 形態的 또는 pattern的 無秩序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中世都市의 形態的 無秩序는 中世都市의 秩序와 對比의인 모습을 보인다. 建築環境이 秩序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生活 사이가 調和 또는 融合的 關係에 있다는 말이다.

人間의 生活內容은 歷史의 進展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變質된 生活은 環境構造의 變質을 必然的으로 요구하고 있다. 變質의 幅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人間은 無限大의 適應能力으로서 이에 對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建築環境이 제멋대로의 팽창과 亂立을 하게 된 背景에는 制度的 興件의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에 관련된 소위 전문가들의 無誠意와 大衆의 無關心의 탓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 소위 “停滯”의인 生活秩序가 帝國主義勢의 上陸으로 붕괴되면서 建築環境은 제멋대로 파괴되고 無秩序한 팽창만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無秩序한 팽창은 제어할 수 있었고 또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 제어가 不可能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生活의 變化에 對應 하는데 있어서 集團이 主體的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다. 變化의 要諦를 把握하려 들지 않았고 성실한 計劃과 검토를 하려 들지 않았다.

어떠한 混亂도 그 責任은 外部條件에 있지 않고 그 集團自身에게 있다. 集團은 스스로의 게으름과 비겁때문에 混亂을 自超하게 된다. 앞으로의 方向 설정을 위해 몇가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나, 技法의 皮相의 導入

우선 첫째로 검토해 볼 점은 建築行爲에 있어서 諸技法이 어떻게 구사되었는가이다. 都市의 內容物인 人口, 物資, 生産, 流通, 消費, 再生産의 量이 급격히 팽창되자 이에 相應하게 建築環境構造도 擴大되어 나갈 때 이를 主導하여 이끌어 나간 階層의 對應자세는 거의 共犯者의 그것이었다.

帝國主義勢의 侵入을 받았던 大部分의 國家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建築環境構造는 官료체계의 주도하에 형성되었다. 建築環境은 그 成長의 첫 時期를 총독부체제라는 不運한 主人의 밑에서 겪게 되었다. 以前까지 風水地理說에 의해서 그리고 停滯性에 의해 良質로 保存되었던 環境은 총독부의 開發政策으로 유린되었다. 게다가 解放後의 西進勢가 占有한 物質의 優位는 建築環境에 對한 西洋의 諸技法을 제멋대로 그리고 극히 皮相의으로 이 땅위에 移植시켰다. 移植의 主人公은 官료 체제였고 이 官료체제가 갖게 되는 경직성과 不誠實性은 諸技法을 形式主義의으로 理式主義의으로 理解시켰다. 아직까지도 그 慣性에 의해 우리의 建築環境은 舊態依然한 法規, pattern, 地役制, 區劃整理 手冊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질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建築環境구조의 조작성은 官료체제 主導形에서 벗어나 建築家의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官료기구는 어디까지나 行政 本來의 control 역할만을 가져야 한다. 官료적 경직성이 建築環境의 조작과정에서 除去된다면 오늘날 되풀이되고 있는 여러 시행착오는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다. 建築行爲 사이의 不連續性

둘째로는 建築行爲에 있어서 水平的으로 垂直的으로 分割되어 있는 諸分野 사이에 一貫性 있는 規範이 없다는 點이다. 각 分野에의 準用되는 判斷規範이 제각기 獨善적이며 相對的인 성격의 것이고 그것은 各國人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조각난 斷絶狀態— 이것도 無秩序를 야기시킨 장본인이다. 斷絶狀態의 原因은 各者가 자기 자신만의 個體의 立場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풀어질 구슬은 꿰어야 맞다. 諸分野를 꿰는 作業은 個體의 立場에서 벗어나 總體적 立場에 서는데서 시작될 수 있다. 모든 判斷의 근거를 자기의 總體, 即 民衆에 두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個人的인 觀念유희에서 벗어나고 知性的 不確實性에서 脫出하며 저열한 德카당머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點에서 妥當性을 가지는데 첫째는 建築環境의 所有者가 바로 民衆이며, 둘째는 어떠한 判斷에 있어서도 가장 현명한 判斷을 내릴 수 있는 者는 바로 民衆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民衆이라는 總體概念은 설정하기 어렵다.

民衆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民衆이라는 總體가 各個人의 內部에 있다고 본다. 即 個人이 極히 우연적이고 多樣한 意識中에서 必然的이고 明白한 部分들이 서로 接合되어 응고되어 나타난 모습이 民衆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總體의 意識은 다르게 말해 “傳統”이라는 概念의 형태로 나타난다. 建築環境의 전체를 꿰고 있는 規範은 바로 이 “傳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傳統”이란 一種의 批評意識이다. 批評意識이란 認識에 있어서의 明白性이므로 우리가 傳統에 관한 論議를 부산

하게 벌여왔지만 그것이 實體는 定立하지 못했다. 나는 그 失敗의 원인을 傳統을 具體的인 모습으로 먼저 設定하려는 데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傳統의 定立作業은 그렇게 直接的인 攻略의 성질이 아니라 오히려 逆順의 方法에 의하여야 한다. 가령 建築環境의 경우를 보면 환경에 실제적으로 변형을 야기시킨 觀念들, 技法들, 政策들, 論爭들의 假蝕性和 明確性を 되풀이하여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드러난 皮相의으로 形式主義的으로 實在를 둘러싸고 있는 큰 더더기를 제거함으로써 可能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찌꺼기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하는 反省을 함으로써 우리 自身의 創造力이 소생되고 모방성향에 쫓려 있던 民衆總體의 리비도가 創造의 方向의 出口를 찾게 될 것이다.

결국 混亂은 個人이 明白히 깨닫지 못한 애매성이 모든 行動決定에 침투되어 狀況이 극히 우연적인 發想에(이것이 소위 요즈음의 아이디어다!) 의해 좌우될 때 야기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混亂은 이런 애매성의 集積이며 秩序는 明白性의 集積이다. 明白한 것들만이 建築環境의 여러 分野 相互間에 交流될 때 斷絶의 狀態가 拂拭되고 秩序있는 建築環境이 形成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斷絶의 克服 — 建築家와 專門家

斷絶狀況을 綜合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은 반드시 conductor의 役割을 必要로 한다. 各個의 專門家가 자기 혼자만의 樂器만을 고집함으로써 全體의인 음향은 不協和音이 되버린다.

建築家の 역할은 바로 이 conductor의 역할이다. 古典的인 뜻에서도 建築家の 意味는 이런 綜合的인 創造作家였다. 分析과 專門의 時代를 거치면서 建築家は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다시 綜合의 時代를 맞아 建築家の 역할은 전체 建築環境의 秩序를 되찾기 위해 회복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좁은 의미의 建築技術者 또는 建物 디자이너의 次元을 넘어선 古典的인 建築家の 創生이 있어야 한다. 그는 建築環境 諸 問題의 해결에 方向을 提示하면서 다른 專門家들의 作業을 일관되게, 그리고 集中되게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建築家は 專門家가 좁은 角度에서 찾아내는 精巧함을 하나의 象徴構造 속에서 結合시키게 될 것이다. Goethe가 생애에 있었던 諸事實에 “詩와 眞實”이라는 象徴의 자태를 줌으로써 諸事實들이 서로 완벽한 調和로써 묶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建築教育의 方向을 바뀌어야 하며 실제 作業에 있어서 그 次元을 달리 해야 한다. curriculum은 engineering 中心의 方向에서 文化把握의 方向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engineering 中心의 専門분야는 따로이 領域을 만들어야 한다. 建築家和 建築技術者 사이의 區別이 確然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design 편향 또는 engineering 편향의 作業은 designer, engineer로 分離되어야 하며 建築家は 이 모든 것을 조감할 수 있는 位置에 서야 한다.



이런 전반적인 再構成에 社會的投資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社會의 일이기 때문에 建築家は 環境全體의 질서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여러 專門家들의 作業을 結合시켜 그 時代의 文化를 具體的인 形態로 具現시키는 일을 한다는 點을 확고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 3. 最終規範 : Ecological 한 調和

#### 가. 個體的 效率性 : 技術文明의 規範

現代文明의 가치규범은 “效率性”이라고 端的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文明의 本質의 性格이 “技術”에 의해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技術文明은 “分析”의 方法論을 基調로 하고 있으므로 必然的으로 專門化라는 路線을 걷는다. 이 方法은 角度를 예리하게 하여 現象을 규명하고 규명한 結果를 計量可能한 數量으로 表現시킨다. 物理學에 있어서  $e=cm^2$  이라는 式에 의해 質量을 energy 單位로 환원시킬 수 있듯이 技術文明은 모든 形而上學的 가치를 數量으로 換算하려 든다. 即 모든 確定性의 기반을 計量值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方法에 의해 求해지는 解答은 變數를 確定시킬 수 있는 論證的學問에서는 타당하지만 現象에 관한 領域인 環境의 경우에는 타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現象에 있어서는 그 變數를 確定시킬 수 없는 복잡성과 相互관련성이 介在되어 있기 때문이다. 人間이 確定시킨 變數가  $n$  個였다면 技術的 方法은  $n$  個의 變數에 對한 答數를 求해낸다. 그러나 現象의 다른 變數들— 人間이 確定시키지 못한—은 제멋대로 作用될 것이다.

$\langle n+1 \rangle$  個개 부터의 變數요인은 連鎖的으로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汚染의 正體인 것이다.

이것은 效率性을  $n$  個까지에 局限시키는 個體的 效率性의 方法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害蟲을 없애려는 意圖로 考案된 技術的 方法은 人間의 肉體에 새로운 毒素을 침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swan 댐에서 수량조절과 전력획득을 의도한 行爲는 河口의 토질성분 變化로 농업생산량을 감소시켰고 沿岸住民에게 새로운 病原體를 퍼뜨리게 되었다. 都市에 있어서 開發을 意圖한 投資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都市成長에 따른 再開發에 암적인 요소로 되었다. 이렇듯 環境이라는 現象으로 하는 問題에 있어서 個體的 效率性을 追求하는 方法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專門化라는 分析的 路線의 本質에 起因한 結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環境問題에 관한 限 綜合的 方法論을 追求해야 할 것이다.

### 나. Ecology 에서의 類推

여러 학문 영역 중에서 비교적 綜合的方法論을 지니고 있는 것은 ecology 다.

여기에서는 自然이 지니는 均衡법칙 또는 秩序를 다루고 있다고 보아진다. 自然에 있어서의 秩序는 서로 矛盾되는 要素들 사이의 共存律이다.

自然의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은 矛盾의 해결보다는 正當한 認定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自然에 있어서의 矛盾은 서로의 存在를 뒷받침하고 있는 必然性을 가지기 때문이다.

環境이라는 것은 “유기체의 生活과 物質間的 均衡”이라는 命題이므로 이에 對處하는 지혜는 “自然의 矛盾律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서는 必然코 不作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人間이 自然의 한 종속적 요소라는 겸허한 立場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

人間은 自然이 具備한 풍부한 多産性이 偉大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人間自身の 生活環境도 自然의 秩序에 맞추어 形成하여야 한다는 기본자세를 지켜야 한다.

ecology 에서 類推되는 여러 原理는 人間の 環境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中 하나의 原理는 순환의 양상이다. 即 變化의 本質로서 物質의 어떤 閉鎖된 cycle을 돌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自然이 지니는 呼吸이다. 어떤 生態系에 있어서도 物質의 순환이 한 곳에서 지체되면 生物體의 生活이 위축된다. 建築環境에 있어서도 이 原理는 同一하다.

都市構造에 있어서 그 成長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都市의 기능은 정체되고 위축된다.

再開發의 論理는 이러한 觀點에서 볼 수 있다. 都市가 成長하면 그 物質的 構造는 必然코 탈바꿈을 겪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탈바꿈 과정상의 마찰을 적게 하여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建築環境은 예전과 다르게 그 構造의 要素가 쉽게 分解되어 다시 本來의 生産 要素로 환원될 수 있는 可逆構造가 되어야 할 것이다.

可逆性이 없는 「콘크리트 라멘」造 같은 一體式 工法은 都市의 成長이라는 과정에서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成長速度를 지체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ecology 로 부터 유추되는 하나의 例에 不過하다. 더 많은 진리를 찾아내야만 될 것이다.

### 다. 象徵機能으로서의 調和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建築環境은 象徵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환경구조의 形成은 象徵機能의 側面에서도 有機的 成長이라는 ecology 的 調和를 必要로 한다. 즉 建築環境의 象徵態도 固定的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生活의 樣相이 變化함에 따라 탈바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建築家가 建築環境을 構成하는 데 있어 表現하려는 象徵態는 그 總體的 集團의 文

化와 그 軌를 같이 한다. 建築家가 自身の 文化風土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點에 근거한다. 卽 建築家의 領域은 “表現의 領域”이기 때문이다. 그가 對象으로 하고 있는 것은 具體的空間이다. 具體的 空間에는 어떤 文化가 가지는 獨特한 象徵性이 具現되어 있다.

建築家가 다루는 空間은 모든 多樣性과 異質性을 除去해버린 抽象的 또는 幾何學的의 공간이 아니다. 文化風土가 다른 地域에서 同一한 사소한 材料, 즉 흙, 나무, 벽돌 등으로 構築된 공간 質이 현저하게 다른 것은 文化에 뿌리박고 있는 象徵態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공간의 質이 다르다는 것은 生活의 質이 다를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生活의 質이야말로 建築環境의 構成에 있어서 建築家가 궁극적으로 追求해야 할 對象인 것이다. 즉 그것과 環境構造와의 調和인 것이다.

### 〈討 論〉

司會：그럼 尹張燮 教授께서 5分 내지 10分間 comment 를 해 주십시오.

尹張燮：첫째 오늘 느낀 것은 人間과 環境問題가 상당히 廣範圍하고 重要한 問題라는걸 여러 分野의 專門家께서 討議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再認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金壽根 先生께서 比較的 간결하게 要點을 要約해서 記錄해 놓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勿論 主觀的인 解釋이지만 建築文化 自體에 대해서 지나치게 象徵的인 機能을 強調한 것 같습니다. 建築에서 象徵的인 機能이 重要하지만 그 全體를 代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第2分科에 參席하고 있는 Columbia 大學校의 Charles Goldberg 氏는 우리나라 農村의 집을 보았을 때 아름답기는 하지만 象徵的인 要素는 가장 적게 考慮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全部의 建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建築活動에 있어서 有機性, 連續性, 統一性을 갖지 못하고 建築文化가 發達되어 온 것은 共通的인 見解일 것입니다. 建築文化가 地域의 特殊性과 우리 文化에 맞게 發展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意味에서 좀더 여러 分野에서 同時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司會：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工大 建築科의 李光魯 教授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光魯：金壽根 教授의 論文을 읽어 봤지만 環境에 대해서 날카롭고 간결한 論旨에 感名을 받았읍니다. 建築뿐만 아니라 여러 分野의 先生님이 參席하셨으니 좀 더 範圍를 넓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역시 建築이 생긴 理由는 太初에 人間이 自然 속에서 추위와 더위, 그리고 外部의 侵入을 막기 위해서 집이 發生되었습니다. 이것이 環境의 適應이며 自然의 征服이 집의 始初라고 할 수 있습니다. 建築은 環境과 같이 걸어 왔으며 오늘날에서의 建築은 집 하나만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으며 집 問題뿐만 아니라 都市, 國土까지 다루었다는 點

에서 同感입니다. 建築의 theory란 都市計劃, landscaping 과도 같은 原理입니다. 한편 오늘날 感覺에 대한 pollution, 특히 視覺, 聽覺에 대한 pollution 이 너무 많으며 視覺的, 感覺的인 汚染을 막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집 하나만으로 解決할 수 없으며 環境問題까지 考慮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ecological 한 問題, 哲學的인 問題까지도 包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環境大學院에서 建築問題까지도 다루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工大의 建築科도 어떤 意味에서는 環境大學院에 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애는 豫算問題, 即 經濟的 問題이지만 앞으로 豫算面, 政策的인 面까지도 考慮되어야 할 것입니다.

司會: 지금 두분의 comment를 要約할 必要는 없겠지만 尹張燮 教授는 지나친 建築의 象徵的인 問題를 提起하셨고 李光魯 教授는 建築이 現在 가지고 있는 自然에 대한 방어, 自然 環境, 建築家의 役割을 생각할 때 다른 하나의 shelter로 再認識하고 그리고 感覺的 汚染도 建築環境과 聯關되어 있으며 建築環境의 造成은 建築家의 專門分野만이 아니고 社會全體의 文化創造의 機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계시면 좀더 討論을 繼續하고자 합니다.

康炳基: 建築에서의 論理性的의 有無가 問題될 것 같습니다. 建築이 文化의 創造라고 하였는데 果然 文化를 論理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疑問이 갑니다. 또한 人間, 文化에 있어서 一般的인 意味에서의 人間과 本 主題內의 人間과는 乖離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問題는 建築의 「커리큘럼」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建築을 環境의 element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教育의 「커리큘럼」은 그렇지 않습니다. 建築의 教育에도 環境을 導入할 必要가 있을 것 같습니다.

朴炳柱: 建築家의 役割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靜的인 時代의 建築家의 役割과 動的인 時代의 建築家의 役割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注意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建築과 urban design, planning 등의 專門性的의 限界가 必要하다고 봅니다.

司會: 建築과 環境이 全體 issue가 될 것 같습니다. 環境汚染을 minimize 할 수 있는 새로운 建築, 即 energy를 save 할 수 있는 建築, 또는 太陽熱을 利用한 自家冷暖房의 建築, 혹은 experimental city, 다시 말하면 전혀 汚染이 없는 아주 實驗的 都市等은 環境問題와 聯關해서 提起될 수 있는 몇가지 問題라고 생각됩니다. 長時間 討論에 參與해 주셔서 感謝합니다.